

이해찬 前총리 24일 전주서 출판기념회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재단법인 광장 이사장의 출판 기념회가 오는 24일 오후 5시 전주시 사학연금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에 발간된 책 '광장에서 길을 묻다'는 이해찬과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진보 지식인 23명이 지난 3년간 광장에서 나온 대화와 성찰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호남신학대 신임 이사장에 김재영목사



김재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가 최근 호남신학대 1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 목사는 기독문화선교회 광주대표와 총회 남북 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남북 평화연구소 이사, 광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위원을 맡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유교학회장에 김승현 목포대 교수



김승현 목포대 사범대학장이 최근 한국유교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유교학회는 유교 사상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1985년에 창립됐다.

가수 남진, 박춘석 기념사업 회장 맡아



가수 남진씨는 11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박춘석 기념사업회' 발대식 및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남진씨는 지난해 3월 별세한 작곡가 박춘석 선생의 기념관 건립 및 노래비 제막, 가요제와 주모 음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이천희·전혜진 백년기약



배우 이천희(32)-전혜진(23) 커플이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천희와 전혜진은 2009-2010년 방송된 '그대 웃어요'에서 연인으로 출연하며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천희는 지난해 12월 결혼 계획을 발표하며 당시 전혜진이 임신 8주라고 밝혔다.

모델 출신으로 2003년 영화 '바람난 가족'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한 이천희는 영화 '태평FORMANCE' '10억', 드라마 '글로리아' 등에 출연했으며 SBS 예능 프로그램 '페밀리가 떴다'를 통해 인기를 모았다.

아역 배우 출신인 전혜진은 1998년 드라마 '은실이'에서 여주인공을 연기하며 주목받았으며 이후 '오! 마이 레이디' 등에 출연했다.

"치매 아버지 찾기 큰 도움 감사합니다"

광주공원 어르신들에 식사 대접 故박연탁씨 유족

"저희 아버지를 찾는데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린 건 많지 않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지난 12일 점심시간을 맞은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다. 최근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박원호(50·사업·전주시 북구)씨 가족이 차려낸 따뜻한 밥 한 상이 1500여 노인들을 반겼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안됐네.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 고인도 기뻐하실 것이다."

박씨 가족이 광주공원 노인들에게 한끼

식사를 대접한 것은 치매를 앓던 중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데 함께 걱정해주고,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한 보은의 표였다. 고인이 된 박씨의 아버지 연탁(사망 당시 78)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시 북구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종적을 감췄다.

박씨 가족은 고향인 구례는 물론 광주 인근 담양·순창·곡성 등지를 수시로 오가며 "아버지를 찾는다"는 전단을 수천 장 뿐만 아니라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박씨 가족은 고인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자주 찾았던 광주공원에도 들려, 전단을 나눠주며 아버지 소식을 수소문했고, 노인들도 "아직도 찾지 못했느냐? 빨리 찾아야 할 텐데.."라고 격려했다.

고인은 실종 80여 일만인 지난달 28일 북구 생활동 패밀리랜드 인근 야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가족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조의금으로 들어온 2000여만 원을 모두 광주공원 노인 식사 대접과 북구장학회에 내놓기로 했다. 평소 주변과 나누기를 좋아했던 고인을 본받아, 마지막 유산을 의미 있게 쓰기로 한 것이다.

이날 식사대접에는 박씨를 비롯한 고인의 육 남매(남 5녀)와 큰 사위 배경윤



고(故) 박연탁 할아버지의 유족이 12일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에서 1500여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a@kwangju.co.kr

박씨 가족은 "자기 일처럼 도와주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남은 가족이 뜻을 모았다"며 "한국인은 어르신들이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와 인간 함께 잘사는 지구 만들 것"

야생조류협회장 당선 고경남 신안군 철새담당

"인간과 새, 모든 생물이 함께 잘 사는 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경남(47) 신안군 해양수산과 철새갯벌담당(6급)이 최근 서산시청 제2청사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한국 야생조류협회 제11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한국 야생조류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야생조류협회는 전국에 회원이 1000여 명에 이르며 새로운 종(種) 발견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단체 중의 하나다.

신임 고 회장은 13일 "새와 환경을

사랑하고 야생조류와 자연의 아름다움, 소중함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류사회와의 보편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하는 중심축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공휴일을 이용, 남해안의 수많은 섬을 찾아 봄, 가을 이동하는 철새와 물레 새, 칠새 등 희귀조류를 찾아 자신의 망원 카메라로 번식 생태를 기록으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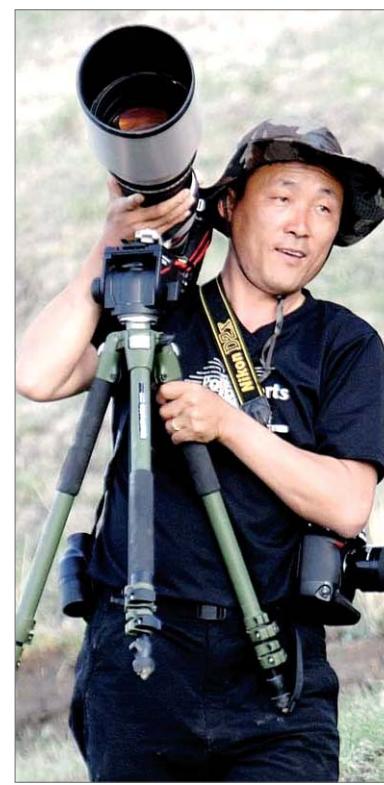
국내에 도래하는 520여 종 중 지금까지 450여 종을 활영할 정도로 자료도 방대하고 관련 지식도 풍부해 직원 사

이에서는 '조류 박사'로 통할 정도다. 그는 야생화 등에도 탁월한 식견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

지난 2008년 미기록종 쇠물을 찾아 '신안 새우란'으로 명명해 주목을 받기도 했고 지난 2003년에는 목포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흑산면 장도습지를 발견해 '암사로 습지'로 등록하기도 했다.

다소 특이한 업무인 '철새갯벌' 업무를 맡은 그는 "인간도 자연에 의존하는 생물로 새가 살 수 없다면 인간도 살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매일 많은 생물이 멸종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광산 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류상운씨

류상운(하남 남도한정식 동감 대표)씨가 광산구 생활체육축구연합회 제7대 회장에 취임했다.



광산구 축구 연합회는 광산, 어등, 하남, 풍영, 첨단 등 5개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5개 팀 2500여명의 생활체육인이 참가해 축구를 즐기고 있다.

광산구 축구 연합회는 축구발전과 회원 상호 친목 도모를 목표로 결성된 단체로 매년 개최되는 광주시장기 5개 구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6연패를 달성한 가장 모범적이고 활발한 생활체육 연합회로 잘 알려져 있다.

김희태씨 장흥에 도서 5400점 기증

장흥 출신 김희태(54) 전남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장흥군 정남진도서관에 문화재와 향토 자료 등 5400여점을 기증했다.



이는 정남진도서관에 책을 기증한 기관과 단체,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다.

김 위원이 기증한 책은 각 지역의 연혁을 알 수 있는 향토문화 자료집, 역사 자료집, 사회과학, 예술, 종교,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책들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kwangju.co.kr

"마나슬루에 잠든 동료를 찾아서"

故박행수·윤치원 대원 시신 수습 원정대 발대

영호남 산악인들로 구성된 '자유를 향한 2011 마나슬루(Manaslu·8163m) 원정대(대장 박상수)' 발대식이 12일 오후 순천 메디팜병원 광장에서 열렸다.

원정대는 지난해 네팔 히말라야 마나슬루 정상 등정에 도전했다가 조난당한 고(故) 박행수(당시 29·광주대 OB)·윤치원(당시 41·진해산악회) 대원의 시신을 수습해 국내로 이송하고 그들의 뜻다 이룬 꿈을 대신해주기 위해 꾸려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우윤근 국회의원, 윤장현 전 한국YMCA이사장을 비롯 산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대식에서 위계룡(광주·전남)히말라

얀클립 회장) 단장은 "산은 우리에게 히망과 기쁨, 그리고 깊은 슬픔도 준다"며 "마나슬루 정상은 남은 동료들에겐 하나의 구속이며, 이번 원정은 이를 절제하게 느끼며 그 속에서 자유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상수 원정대장은 "차기운 눈속에 누워있는 두 대원의 시신을 모두 수습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희(40·순천대 OB) 등반대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오는 17일 출국해 이달 말 해발 4800m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4개의 캠프를 차례로 구축한 뒤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다. 현지에서 고용한 세르파 7명도 참



원정대가 다짐하고 있는 '자유를 향한 2011 마나슬루 원정대'.

여한다.

술진 두 대원은 지난해 4월 24일 3명의 등반과 함께 정상 공격에 나섰다가 정상을 불과 60여m 앞둔 해발 8100m 지점에서 강한 바람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화이트 아웃을 만나 비박을 한 뒤 하산을 강행했으나 악천후로 인해 실종됐다.

원정대는 두 대원의 시신이 있을 것

으로 추정되는 7200~7500m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계획대로 시신 수색과 수습, 이송이 완료될 경우 정상 공격을 시도한 뒤 6월 2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마나슬루는 세계 제 8위의 고봉으로, 현지인들은 '마나사(Manasa)'라고 부르며 신성시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인사

◆무인군

◇승진(5급) ▲전문위원 김원부 ▲동탄면장 서창국

◇(6급) ▲기획실 정재호▲민원봉사과 김기영 ▲해양수산과 일한선▲상하수도사업소 최상필

◇(7급) ▲남악신도시사업소 서현권▲명운면 정말순▲청계면 백성태▲해제면 나은성▲ 김희성 ▲운남면 강정자

◇전보(5급) ▲주민생활과장 고용석 주민생활과장 ▲문화체육시설소장 김인상▲운남면장 김성훈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모집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

라인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골드원 여성 팝스 중장단=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뉴립'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불교방송국, 062-723-7223~4

▲백운선 다이빙스쿨 회원=잠수교육, 스キン스쿠버다이빙. 062-671-1918.

▲황실 심자수 무료 수강생=��선·시계·베개·주자종·방석·액자·지갑·핸드폰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합회 사회인 야구팀 '엑스킬리버' 팀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ют 엘리트 살사동호회 회원=총장로 3가 충과 앞 더비다 십자, 허리정수